

만2세 하루 일과 별 사례 및 부모역할

부모와 영아 상호작용 상황	아동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례	부모역할
화장실 가기	영아가 옷에 실수를 했을 때 - “그러니 음료수 조금만 마시지. 오줌 싸면 옆집에서 소금 받아와!”	부모는 영아의 대소변 가리기 훈련시 위협이나 빈말을 해서는 안 된다. 영아의 음식 및 음료수 섭취량을 관찰하여 미리 화장실에 가야 할 것을 알려준다. 만약, 실수를 하더라도 편잔을 주거나 나무라지 않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또한 실수하지 않았을 때는 그 행동에 대해 칭찬을 해준다.
씻기	아이가 씻기 싫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며 울 때 - ‘씻지 않으면 피부병 등 온갖 병이 네 몸에 퍼지게 된다. 너 정말 아프고 싶어?’ 등과 같이 위협적으로 말하는 경우	영아가 졸리거나 피곤할 때, 놀이를 중단하고 싶지 않을 때 등의 상황에서 목욕하기 싫을 수 있다. 평소에 목욕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여 하루 일과를 구성하고, 정해진 시간 동안 놀이가 끝난 후에는 목욕을 해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알려 준다. 더불어 부모는 정기적으로 올바르게 씻는 모습을 자주 보여준다.
	씻는 동안 욕실에서 비누와 물을 가지고 장난하며 오래 있을 때 - “물 좀 아껴서 사용해! 그만하지 못하겠니?”	영아는 씻을 때 비누를 사용하며 재미나 흥미를 느낀다.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씻는 동안 비누나 물을 이용한 놀이를 통해 스스로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외출	엄마는 00와 길을 걷는다. 멀리 떨어져 걸어오는 00을 보며 - “00아 어서와, 이제 우리 집에 가야해.” 00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돌아다닌다. 엄마는 인내심을 잃었다. - “00야 당장 이리와! 그렇지 않으면 혼난다!” 00는 엄마를 무시한다.	이 시기 영아는 주변 탐색을 즐기며 혼자서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 한다. 특히 ‘아니야’, ‘싫어’라는 말을 갓 배워 자주 사용한다. 부모는 영아의 이런 특성을 이해하고, 잘못된 자아개념을 발달시킬 수 있는 ‘고집쟁이’와 같이 부정적 언어와 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집에 가야할 시간임을 단호하고 간결하게, 따뜻한 목소리와 표정으로 얘기한다.
놀이시간	놀이하던 중 아이가 친구의 코를 이빨로 물었다. 이때 엄마가 나서서 영아에게 얘기한다. - “어~ 친구를 또 물었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엄마가 몇 번이나 말했니.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어떻게 하니? 네가 또 그러면 친구들이 널 싫어 할 거다.”	걸음마기 아이는 이가 나는 과정에서 잇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깨무는 행동을 많이 한다. 그렇다고 무는 행동을 허용할 수 없다. 일단 친구들과 놀이할 때는 부모 등 어른이 옆에서 아이의 행동을 잘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누군가를 무는 행동은 절대 허용할 수 없음을 설명해 준다.
옷 입기	혼자서 옷을 입겠다는 영아를 놔두었는데, 옷을 제대로 갖추어 입지 못했을 때 - “자, 네가 입은 옷차림을 좀 봐. 넌 아직 혼자 할 줄 모른다고 했잖아. 엄마가 다시 옷 입혀주는 동안 얌전히 가만히 좀 있어.” 영아는 엄마가 자신이 입은 옷매무새를 만지지 못하도록 버둥댄다.	이 시기 영아는 옷 입기, 식사하기, 신발 신기 등 많은 행동을 스스로 하고 싶어 한다. 영아가 옷 입기 등을 혼자 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때때로 옷을 다시 입혀 주어 유아가 좌절을 경험하지 않도록 한다. 가능한 영아의 행동을 승인해 주어야 한다.